

삼성전자, ‘엑시노스’ 생산 확대 차세대 AP시장 정면승부 나선다

갤럭시 S시리즈 모델 추가 검토
엑시노스 탑재 범위 확대 가능성
연산 성능 등 경쟁력 시험대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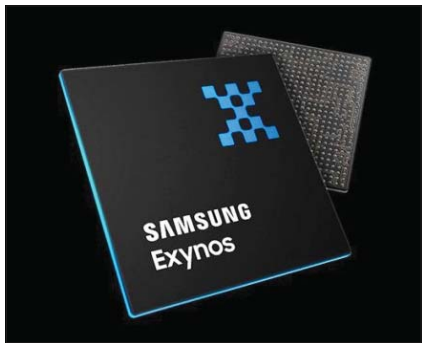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의 생산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칩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S27 울트라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엑시노스의 성능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엑시노스 2700의 초기 생산 물량을 전작보다 약 10%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IT 매체 더블유씨씨에프테크(Wccftec)는 최근 정보 유출자(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700의 생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엑시노스 2700에는 삼성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작인 엑시노스 2600에 적용된 1세대 2나노 공정(SF2)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성능 시험 결과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외 IT 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엑시노스 2700은 내부 각벤치6 멀티코어 시험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엑스트림 6세대’보다 약 9.5%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초기 벤치마크 점수만으로 실제 스마트폰에서의 성능을 판단하기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심벌. /삼성전자

어렵다. 엑시노스 2700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은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 성능이다. 모바일 AP는 높은 연산 성능을 확보하더라도 전력 소모가 크거나 발열이 심하면 장시간 사용 시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고사양 게임과 인공지능(AI) 기능 등 연산 부담이 큰 작업에서는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과거 엑시노스 일부 제품에서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를 겪었다. 이후 중앙처리장치(CPU) 구성을 변경하고 AMD와 그래픽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성능 개선에 나섰다. 엑시노스 2600부터는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전력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엑시노스 2700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갤럭시S27 시리즈의 제품 구성 변화도 엑시노스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존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외에 프로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형과 플러스, 프로 모델에는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을 나눠 탑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외 IT 매체 샘모바일은 최근 갤럭시 S27 울트라에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이 독점 탑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부 지역에 엑시노스 2700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퀄컴 칩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갤럭시S23부터 올해 갤럭시S26까지 국내 출시 울트라 모델에 4세대 연속 퀄컴 칩을 채택했다. 지난해 갤럭시S25 시리즈는 기본형부터 울트라까지 전 모델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다.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S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제품인 만큼 AP의 연산 성능뿐 아니라 발열과 전력 효율, 안정적인 공급 능력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700의 생산 물량을 늘리더라도 실제 제품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최상위 모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 2700은 차세대 공정 적용으로 성능 개선이 기대되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열과 전력 효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상위 모델에 적용하려면 성능뿐 아니라 양산 수율과 공급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이 같은 부분들이 향후 탑재 범위를 확대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HD현대는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멘스와 함께 ‘글로벌마린센터(Global Marine Center)’ 개소식을 가졌다. HD한국조선해양 김형관 대표(왼쪽 세번째), 지멘스 로버트 존스(Robert Jones) 최고수익책임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HD현대-지멘스, 조선소 디지털 전환 속도

HD한국조선해양 ‘글로벌마린센터’ 개소

HD현대가 지멘스와 손잡고 선박 설계부터 생산·유지보수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조선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양사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거점을 마련하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과 실제 조선소 적용을 본격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글로벌마린센터(Global Marine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마린센터에는 선체·전장·배관·선실 등 선박 설계·생산 분야와 인공지능(AI) 플랫폼, 제품수명주기관리(PLM) 분야의 양사 전문인력 50명이 근무한다.

양사는 선박 설계부터 생산·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3차원(3D) 모델로 통합하는 차세대 마린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상 환경에서 생산 공정과 설비 운영을 사전에 검증하는 디지털 조선소를 구현하고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해 지능형 조선소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 그룹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플랫폼의 기술 전략과 원천기술을 지원하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HD현대삼호 영암조선소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효율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유혜온 기자 dhale@

삼성重, 美·인도 등 해외 조선사 협력 강화

기술·설계 지원 등 사업영역 확장

삼성중공업이 해외 조선사와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및 생산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13일 인도 매체 이코노미타임스(ET)에 따르면 스완 방위산업중공업(SDHI)은 인도 해운공사(SCI) 주도의 중형(MR) 석유제품운반선 입찰에서 착당 약 4800만달러로 최저가를 제시했다. 사업 규모는 확정 2척과 옵션 2척 등 최대 4척, 약 2억달러다.

삼성중공업과 SDHI는 지난해 9월 상선·특수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DHI의 비핀 쿠마르 사세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현지 언론에서 삼성중공업이 선박 설계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자재 패키지를 제공하고 SDHI가 구자라트주 파파바브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선박별 설계료·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구상을 밝혔다. 양사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8척 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군수지원함 설계와 조선소 자동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 나스코(GD NASSCO), DSEC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에 참여해 대덕연구센터의 대형 수조 시험 기반 선형 설계 기술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지원한다.

지난 4월에는 GD 나스코 경영진과 NGLS 사업 및 조선소 현대화·자동화 협력을 논의했다. 삼성중공업은 추진 중인 로봇 전환(RX) 기반 24시간 무인·자동화 조선소 기술을 활용해 설계·건조 지원에서 생산공정 자동화·솔루션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조선소에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은 직접 인수운영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 부담을 줄여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현지 업체와 수익을 나누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LS일렉트릭, AI 인프라 사업 중심 실적 질주

북미 AI DC용 배전설비 공급 확대
美 생산시설 확충… 차세대 기술개발
3분기 매출·영업익 큰 폭 개선 전망

LS일렉트릭이 북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배전설비 공급 확대와 초고압변압기 증설 효과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전반과 변압기 수주잔고도 늘어나면서 미국 생산시설 확충과 차세대 직류 전력기술 개발을 통해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6.84% 늘어난 1조6643억원, 영업이익은 91.47% 증가한 1930억원으로 예상된다.

북미 수출 물량 증가와 주요 제품 가격 인상, 초고압변압기 증설 효과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외부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와 서버·냉각설비에 전력을 나눠 보내는 배전설비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이들 제품을 함께 공급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북미 빅테크 고객사의 물량 확대 요청으로 AI 데이터센터용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계약이 기존 1064억원

에서 230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6월 체결한 계약의 공급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납품한다. 이달 1일에는 약 1812억원 규모의 북미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용 초고압변압기 계약을 확보했다. 9개 변전소에 2030년까지 345kV급 초고압변압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주 범위는 데이터센터 현장 발전설비로도 확대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블룸에너지와 약 1853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빅테크 데이터센터의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에 고압 수배전반과 배전용 변압기를 함께 공급한다. 납품은 내년 4~7월로, 이번 계약을 포함한 블룸에너지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6700억원을 넘어섰다.

북미 수요 확대는 매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배전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5.4% 늘어난 4193억원을 기록했다. 초고압변압기 매출도 부산공장 증설에 따른 공급량 확대에 힘입어 91.2% 증가한 1581억원에 달했다. 북미 매출은 약 4000억원으로 해당 지역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LS일렉트릭은 늘어난 주문에 대응할 생산능력도 확보했다. 1008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부산공장 증설을 완료했

으며 자회사 LS와워솔루션을 포함한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연간 매출액 기준 약 8000억원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가동하고 있다.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북미 배전설비 공급능력도 늘리고 있다. 총 2500억원 규모의 미국 유타주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며 202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증설 후 배전반 생산능력은 연간 매출액 기준 약 5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텍사스주 배스트럽 캠퍼스와 함께 현지 영업·설계·생산·서비스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84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LS일렉트릭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변환 손실을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변압기·반도체차단기·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시스템 등 직류 전력설비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외부 전력망과 연결하는 설비부터 내부 배전설비까지 공급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을 함께 공급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이 수주 경쟁에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화학, 日 도쿄팩 참가… ‘유니커블’ 소개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

‘LG Chem Packaging House’ 운영

LG화학이 초박막 단일소재 포장필름의 기술력과 상용화 사례를 앞세워 일본·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복합재질 포장필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성을 높인 소재로 고객사의 포장재 전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팩(TOKYO PACK) 2026’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시부스는 집을 본뜬 ‘LG Chem Packaging House’로 구성한다. 리빙(Living)·키친(Kitchen)·케어(Care) 등 세 공간에서 일상 속 제품에 적용된 포장재를 소개하고

기술 상담 공간도 운영한다.

LG화학이 선보일 핵심 소재는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 ‘유니커블(UNIQUABLE)’이다.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기존 복합재질 필름과 동등한 물성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LG화학은 단일소재 필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12마이크로미터(μm) 두께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커블은 식품·펫푸드·생활용품 포장재 등에 활용되고 있다. LG화학은 국내 대표 제과 전문기업 크라운제과와 공동 개발한 포장재를 주요 스낵·캔디 제품에 적용한 사례를 공개한다.

/원관희 기자